

21대 총선 공동대응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입니다. 여러 단체에 평등과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0년 4월이면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을 예정이고 정치권은 벌써부터 총선 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촛불 이후 국회가 보여준 모습을 떠올리면, 과연 모든 사람의 존엄한 삶을 위한 변화를 약속하는 선거가 될지 우려가 앞섭니다.

소수자를 희생양 삼아 혐오와 적대를 선동하는 사회적 흐름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오히려 침묵과 승인으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이 혐오와 차별에 편승해 지지를 얻으려는 경향이 심해진 반면, 그에 맞서 평등을 이루려는 발언이나 정책은 더욱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표를 구하는 선거는 차별을 못 본 척 넘어가려는 경향을 가집니다. 투표에 참여하라는 호들갑 속에서도 누군가는 투표를 할 수 없는 조건에 방치됩니다. 평등을 위한 여러 정책 제안은 '소수자'의 문제로 부차화되고 시혜는 약속될지언정 권리는 약속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평등을 향한 열망을 더욱 모아내고 구체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행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1대 총선이 다시금 차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여러 단체들과 공동대응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부터 평등정책TF를 구성해 다양한 반차별 정책들을 엮어가는 활동을 진행 중이며 선거 시기 후보나 정당의 혐오 발언 규제를 위한 활동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의 참정권 제한을 드러내고 개선을 촉구하며, 한국사회에 평등의 지표를 제시할 정책박람회 등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 단체들과 21대 총선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간담회를 제안 드립니다. 한국사회의 차별에 맞서고 평등과 연대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여러 단체에서 의견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힘 모으는 만큼 한국사회가 평등으로 한걸음 전진하리라 믿습니다.

21대 총선 공동대응 모색을 위한 간담회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오전 10시 반~12시

장소 : 인권재단 사람 2층 한터홀

진행 :

1부 나눔의 시간 : 각 단체의 선거 대응 경험과 고민 나누기, 21대 총선 대응의 목표 나누기

2부 모색의 시간 : 공동대응의 필요성 및 방향 토론하기, 다양한 활동 제안 나누기